

## 이민자에 대한 조선 사회의 태도와 그 반응

— 명 유민(遺民)을 중심으로 —

김경미\*

<차 례>

1. 조선의 이민자들
2. 명 유민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기록들
3. 명 유민의 재현을 통해 본 이민자로서의 삶
4. 조선의 명 유민 서사에 대한 명 유민의 대항서사, 안과 밖의 경계 변환

### <국문초록>

이 글은 명 유민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기록과 유민의 후손이 기록한 것을 통해 명 유민의 재현 양상, 명 유민에 대한 조선사회의 태도를 살펴본 것이다. 조선초기부터 일본을 비롯해 외국에서 귀화한 이민자의 숫자가 적지 않았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명에서 온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으로 조선에 온 장병의 후손이거나 반청복명(反淸復明)을 위해 조선으로 온 사람들, 혹은 명의 멸망 이후 요동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유민들이었다. 조선 인들은 이들을 황조인(皇朝人) 또는 황조유민(皇朝遺民)이라 명명하고 존주론에 입각해서 이들을 대하고 관직을 하사했으며 이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명 유민은 조선 사대부의 인정을 받거나 사대부 사회에 끼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그 예로 강세작과 굴저에 대한 재현 양상을 들고 이들이 처한 언어 문제가 명 유민의 위치를 의미심장하게 드러낸다고 보았다. 강세작은 언어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굴저는 자신이 이름이 제대로 불리지 못했다. 강세작은 중국어도 잊어버리고 조선어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문은 구사할 수 있었지만 이전의 모국어와 새로운 모국어 사이에서 말을 잃어버린 강세작은 언어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고, 이는 경계에 처한 그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경계에서 강세작은 주체로

\*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기 어렵다. 자신의 본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비슷한 이름으로 불린 굴저 역시 주체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 강세작, 굴저와 달리 명 유민들은 경제적으로도 곤궁하고 중인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 유민의 후손에 의한 명 유민의 전이 기록되었는데 이를 조선 지식인의 명 유민 서사에 대한 명 유민의 대항서사로 보았다. 그러나 명 유민의 서사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안과 밖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 최창대, 누정시, 누정, 악부시, 자락(自樂)

## 1. 조선의 이민자들

우리나라는 팔도에 귀화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생각건대 건국 직후에 야인(野人)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과 임·병 양란에 들어와 잔류한 병사의 후손일 것이다. 결성(지금의 충청남도 홍성군에 속한 고을)의 바닷가의 한 면은 전부가 귀화촌으로 여진 종족이다.<sup>1)</sup>

『병세재언록』이라는 인물지를 편찬한 이규상(1727~1799)이 귀화인에 대해 서술한 이 대목은 당시 조선 사회 내의 향화인들의 부류와 향화촌의 존재를 알려준다. 향화인은 귀화인을 말하는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귀화라는 말 대신 향화(向化), 투화(投化), 내향(來降), 내부(來附), 내투(來投) 등의 말을 주로 사용했다. 특히 향화라는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기저에는 화이적 세계관이 깔려 있다.

1) 이규상, 『병세재언록』,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창작과비평사, 1997, 186쪽, “我國八道, 多向化子孫, 意初葉後野人內附者, 及壬丙亂留兵之後也. 結城瀕海一面, 都是向化村, 是女真種.”, 296쪽.

조선 초기부터 향화인의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경국대전』에는 향화인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그 규정에 의하면, 향화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주고<sup>2)</sup>, 공로나 재주에 따라 급료와 거처를 제공하며,<sup>3)</sup> 새로 온 향화인에 대해서는 10년 간 세금을 면제해주었다.<sup>4)</sup> 일본에서 온 향화왜인은 고려시대에도 존재했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그 수가 늘어났다. 향화왜인은 스스로 투항해 온 왜인, 구류왜인과 포로, 토지와 식량 부족 등 생활고 때문에 자진해서 오거나 죄를 짓고 도망 온 도망왜인, 송환된 포로를 따라온 자, 불도의 수행을 목적으로 향화한 왜승, 대마도주가 파견하거나 허락을 받고 향화한 자, 삼포 항거왜인 중 조선술, 제련술 등 기술을 가진 자를 서울로 불러 향화시킨 자 등 그 유형이 다양했다.<sup>5)</sup> 이들에게는 관직 하사, 식량·토지·가옥·의복·노비의 하사, 세금과 균역 면제, 성씨와 관향 하사, 월료와 마료(馬料) 지급, 결혼과 취처, 노비 하사, 과거 응시 허용 및 재능에 따른 관직 제수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범죄자의 경우는 현행범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벌했지만 법률 적용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다.<sup>6)</sup> 향화왜인에 대한 이 같은 대우는 왜구를 토벌하거나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는 데 향화왜인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sup>7)</sup> 향화왜

2) 『경국대전』 권 2, 『호전』.

3) 『경국대전』 권 3, 『예전』. 외국 사신과 객을 접대하는 규정을 담은 ‘대사객(待使客)’조에 향화인에 대해 예조에서 그 근각(根脚)·거처·공로·재능을 심의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장부에 기록하며, 해당 조(曹)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관직에 임명하거나 급료와 노비를 차등 있게 지급하고, 향화인은 매달 여섯 차례 예조에 모여 명부에 서명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항상 소속 위에서 근무하되 일체 조하·조참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문지기 등의 잡일은 맡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매 도목(都目)마다 근무일수와 범한 죄를 함께 참작하여 병조에 공문을 보내 승진시키거나 관직에서 쫓아내며, 관에서 집을 주되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며 자손 대에 이르러 파는 것을 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경국대전』 권 4, 『병전』.

5) 한문중, 『조선초기의 向化倭人과 李藝』, 『한일관계사연구』 28, 2007, 95~98쪽.

6) 한문중(2007), 위의 논문, 98~109쪽.

인 중에는 관직에 오르고 관향을 하사받은 인물들도 있었다. 평순(平順)과 피상의(皮尙宜)는 향화왜인의 2세로 조선의 고위 관직에 오르고 조선의 관향을 갖기를 위해서 각각 창원과 동래를 하사받아 창원 평씨와 동래 피씨의 시조가 되었다.<sup>8)</sup> 이같은 우대 정책에 이끌려 일본, 대마도 출신의 외국인들이 조선으로 많이 유입되었다. 조선은 우대정책을 펴면서도 엄격히 관리했다. 향화왜인들의 경우, 일본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가능한 한 차단하기 위해 조선 팔도에 분산 배치했고, 서로 개인적인 왕래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며 향안이나 호적에 올려 관리했다.<sup>9)</sup>

향화왜인과 마찬가지로 조선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이들과 달리 분류되어 관리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명으로부터 온 이주민들로 조선인들은 이들을 황조인(皇朝人) 또는 황조유민(皇朝遺民)이라 명명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명의 멸망, 청의 건국 등 일련의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조선에는 많은 수의 명나라 사람들이 유입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으로 조선에 온 장병의 후손이거나 반청복명(反淸復明)을 위해 조선으로 온 사람들, 혹은 명의 멸망 이후 요동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유민들이었다.<sup>10)</sup> 명나라 멸망 전후로 만 명 이상의 명나라 유민이 조선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sup>11)</sup> 황조인은 향화인으로도 불렸으나 영조는 황조인과 향화인을 구분해서 부르게 했다.<sup>12)</sup> 영조가 향화인과 황조인을 구별하고 달리 우대한 것은 청이 점차 강성해지며 문화국가로 변모해 가자 북벌론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북벌론 대신 존주론

7) 한문중(2007), 위의 논문, 114쪽.

8) 임선빈, 「조선초기 歸化人의 賜鄕과 특징」, 『동양고전연구』 37, 2009, 86쪽.

9) 박영환, 「한국 중세시대에 보이는 난민들」, 『다문화콘텐츠연구』 30, 2019, 95쪽.

10) 노혜경, 「영조대 황조인에 대한 인식」, 『동양고전연구』 37, 2009, 129쪽.

11) 서신혜, 「李奎象이 『并世才彦錄』에 쓴 明人 기록의 등장 底邊 - 『萬裔錄』, 『風泉錄』의 意義와 관련하여」, 『어문연구』 38권 2호, 2010, 430쪽.

12) 『영조실록』 31년(1755) 4월 24일.

(尊周論)으로 채택한 정치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존주론은 천하를 바로 잡는 일은 주나라 왕실을 높이고 이적을 물리쳐서 천하를 바르게 한다<sup>13)</sup>는 논리로 건국 초기부터 명을 중화로 인식하고 스스로는 소중화라 생각해 오던 조선이 명이 망하자 그 명맥을 조선이 이어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당시 조선은 존주론을 그 이론적 근거로 삼고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보단을 설치했으며, 대명의리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천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방안의 하나가 명 유민을 보살피는 것이었다.<sup>14)</sup>

황조인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영조 40년(1764) 총량과가 설치되고<sup>15)</sup> 공을 세우거나 명의 조정에 있었던 황조인에게 선별적으로 관직을 높여 주거나 관직을 내려주었다. 또 황조인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역을 면해 주고 쌀을 지급하거나, 상을 내리고 혼수까지 마련해 주었다. 이는 향화인의 후손이 점차 조선 백성화되어 동일한 역을 지게 되거나 심하면 천역을 맡기도 한 데 비해 황조인은 비교적 우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게<sup>16)</sup> 하는 조치들이었다.

조선 사회의 명 유민에 대한 관심은 최근 한국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명 유민에 대해서는 크게 조선시대 명 유민의 발생과 조선 사회로 유입된 명 유민의 실태, 명 유민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연구<sup>17)</sup>, 명 유민에 대한 문학적 형상

13) 『논어』 「현문」, “匡正也, 尊周室攘夷狄, 皆所以正天下也.”

14) 노혜경(2009), 앞의 논문, 135쪽.

15) 노혜경(2009), 위의 논문, 142~143쪽. 하지만 영조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거하다가 순절한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과거를 통해 선발.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삼학사와 김상응, 김상헌의 후손, 임진왜란 이후 귀화한 황조인의 후예들. 영조 대 이후 중지. 황조인의 후예들은 무과에만 급제. 다른 향화인에 비해 총량과라고 하는 특정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는 있었지만 조선 충신열사의 후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격이 떨어졌다.

16) 노혜경(2009), 위의 논문, 148쪽.

17) 위에 언급한 노혜경, 서신혜의 논문을 비롯해서 최승현, 『한국의 明代遺民 연구』,

화 및 명 유민에 대한 조선 사대부의 인식 연구<sup>18)</sup>, 명 유민 후예들의 기록에 대한 연구<sup>19)</sup>가 진행되어 명 유민의 전반적인 상황과 조선 사대부의 명 유민에 대한 인식, 디아스포라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수용 태도가 밝혀지고, 아울러 19세기 명 유민의 정체성과 위치가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방 민족이나 왜로부터 이주해 온 향화인과 명에서 이주해 온 황조인에 대한 조선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화이론으로 인해 안과 밖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북방민족이나 왜에 대해서 조선은 교화의 주체 즉 화(華)가 되고 북방민족이나 왜가 이(夷)가 되지만, 명 유민과의 관계에서는 명의 유민이 화(華)가 되고 조선이 이(夷)가 된다.<sup>20)</sup> 조선은 명의 유민이 조선으로 온 것은 조선에 중화의 문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선을 화로 놓았다. 그러나 명의 유민을 조선인과 똑같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명 유민과 조선인들 사이의 경계가 다시 조정되면서 조선인의 명 유민에 대한 인식과 명 유민의 인식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명 유민에 대한 조선 사회의 태도는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민자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경계는 안과 밖을 어떻

『중국인문과학』 47, 2011, 351~366쪽, 우경섭, 『조선후기 귀화한인과 황조유민의의식』, 『한국학연구』 27, 2012, 333~365쪽,

- 18) 윤세순, 『17C 중국인 피난민 강제작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와 그 태도-〈강세작전〉과 〈강군세작묘지명〉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0, 2010, 213~258쪽, 사경화, 『디아스포라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문학적 수용 태도-명나라 유민 강제작의 실상을 중심으로-』, 『동방학연구』 37, 2017, 257~284쪽, 손혜리, 『반계가 바라본 명청 교체와 명 유민』, 『한국실학연구』 34, 2017, 321~347쪽, 손혜리,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 지식인들의 明 遺民에 대한 기록과 편찬의식』, 『한국실학연구』 28, 2014, 327~361쪽.
- 19) 사경화, 『조선 후기 明 遺民에 대한 기록 양상』, 『한문고전연구』 34, 한국한문고전학회, 2017, 231~263쪽, 한승현, 『19세기 전반기 明 遺民의 정체성과 구별짓기: 濟南 王氏 王德一, 德九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46, 2018, 325~365쪽.
- 20) 서근식, 『조선시대 ‘향화’ 개념에 대한 연구-『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 2009, 16쪽.

게 나누고, 주체와 타자를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이 글은 조선 지식인의 명 유민에 대한 서사 재현과 명 유민들의 서사 재현을 비교하여 이민자에 대한 조선 사회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명 유민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기록들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명 유민이 유입되지 않게 된 18세기에 이르러 조선의 문인들은 명 유민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1603년 예조 전객사(典客司)에서 향화인들에 대한 기록인 『향화인등록』을 편찬했지만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18세기에 이루어진 명 유민 기록은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이 편찬한 기록으로 먼저 『정미전신록(丁未傳信錄)』을 들 수 있다. 1775년 이서구가 제주 목사 이인의 기록과 황공이 쓴 문답을 얻어 기록한 뒤 이를 『정미전신록』이라 했고, 1798년 성해응이 남중 인사들이 필담한 것과 기타 책에서 본 것들을 구해서 2권으로 편찬했다.<sup>21)</sup> 이는 1667년 제주도에 표류한 임인관 등 95인의 압송 사건 때 기록된 문답, 시문 등을 모은 것이다. 임인관 사건은 명 유민의 후예인 왕덕구가 편찬한 『황조유민록』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1667년 복건성에서 나가사키로 향해하던 4척의 배 가운데 임인관, 진득 등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했다. 이 배에는 95명이 타고 있었는데 제주 목사의 심문을 통해 이들이 복건성 출신으로 대만에 웅거하면서 남명

21) 성해응, ‘정미전신록서’, 『풍천록』, 『연경재전집』 31, “始薑山尙書得濟洲牧使李公墳所記及黃功所著問答, 爲丁未傳信錄, 余又得南中人士以筆談相酬者及散見他書籍者, 補爲二編.”

(南明)과 연계하던 관상(官商)임이 밝혀지고, 무엇보다 중국 남부에 남명이 건재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임인관은 영력제가 광서 일대 4개 성을 점거하고 청에 대한 항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하고 자신들도 단순한 상인들이 아니라 명의 회복을 도모하는 임무를 지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조정은 이들을 북경으로 압송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청으로 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결국 압송되었다.<sup>22)</sup> 당시 이들을 북경으로 압송하는 데 반대하는 상소들이 이어졌고 반계 유형원은 이들이 서울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정읍참에 도착했을 때 직접 가서 만난 뒤 이 일을 시로 남겼다. 『정미전신록』을 편찬한 이서구와 성해응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강조하고 남명의 유민인 임인관 일행을 북경으로 압송한 조정을 비판했다. 이서구는 조선인의 의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진왜란 당시 명과 일본이 원수지간이었을 때 임인관 일행이 일본으로 간다고 하고, 황공이 군대를 끌고 왔다면 모두 대인이라 부르며 무릎을 꿇었을 것인데 명이 망하고 나니 조선에서 노예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비판했다.<sup>23)</sup>

이규상의 『병세재인록』은 18세기 인물들의 행적과 일화를 모은 것으로 이규상은 180여 명의 인물을 18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학자, 시인, 화가, 역관, 규수 등과 더불어 ‘우예록(寓裔錄)’, ‘풍천록(風泉錄)’이라는 항목에 귀화인들을 포함시켰다. 우예(寓裔)에 대해 이규상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산 사람의 자손을 말한다. 우(寓)자는 『춘추(春秋)』에 나오는 우공(寓公)의 의미이다”라고 하고, 풍천에 대해서는 “풍천(風泉)이란 명나라 조정의 옛 일에 감동한 것이다”라고 하여 명 유민에 대한

22) 임인관의 표류와 압송 및 이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에 대해서는 김문식, 『成海應이 증보한 『丁未傳信錄』』, 『진단학보』 115, 2012, 손혜리(2017), 위의 논문, 우경섭, 『명청교체기 조선에 표류한 漢人들-1667년 林寅觀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8, 조선시대사학회, 2019 등이 다루었음.

23) 김문식(2012), 위의 논문, 117쪽.

기록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규상은 여기에 장춘이라는 장수를 제외하면 최희저, 유지, 긴저, 굴저 등 여성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기록들은 이전 사회와 달리 당대 사회에서 명 유민들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사회에서 의미 있는 한 집단이 되었음을 보여준다<sup>24)</sup>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덕무(1741~1793)와 성해응(1760~1839)은 명 유민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인 『뇌퇴낙락서』와 『황명유민전』을 남겼다. 이규상이 많지 않은 인물을 다룬 데 비해 이들은 방대한 인물들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선에 이주한 명 유민들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뇌퇴낙락서』에는 명말청초의 유민 720명의 사적이 수록되어 있고, 『황명유민전』은 『뇌퇴낙락서』의 지나친 부분은 덜어내고 빠진 부분은 보충해서 574명으로 정리했는데 그 중 조선에 귀화한 유민은 일부에 불과하다.<sup>25)</sup> 성해응은 “오직 동방의 선비만이 만력과 승정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오히려 존주양이가 사모할 만한 것임을 알고 있다. 나의 집이 또 대대로 이 의리를 지켜왔다. 그러므로 기쁘게 유민을 위해 전을 지어 황하가 맑아지는 날 천하에 드러나기를 기다릴 것이니 우리 집안의 의리는 이로 인해 인멸되지 않을 것이다”<sup>26)</sup>라고 『황명유민전』을 편찬한 동기를 밝혔다. 자신의 집안이 존주양이에 기반한 의리를 지켰음을 천명한 것이다. 성해응은 명의 유민뿐만 아니라 『풍천록』에도 대명의리에 관한 글들을 다수 남기고 있다. 이 두 저작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전례가 없을 만큼 분량이 방대한 것으로<sup>27)</sup> 평가되는

24) 서신혜(2010), 위의 논문, 427쪽.

25) 성해응, ‘황명유민전서’, 『풍천록』, 『연경재전집』 권31, “李靑莊德懋蒼萃遺民若干人, 顧義例未立, 余乃汰其濫而補其闕, 又從乘史子集與夫偏部短記, 復得幾人.” 손혜리(2014), 위의 논문, 354쪽.

26) 성해응, ‘황명유민전서’, 『풍천록』, 『연경재전집』 권31, “獨吾東之士, 常懷萬曆之恩崇禎之惠, 尙能知尊攘之爲可慕. 余家又世守此義. 故喜爲遺民作傳, 以待河清之日, 得章顯于天下, 而余家之義因之不泯乎.”

데 조선 사회는, 그리고 이덕무와 성대중은 왜 명 유민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까?

이 저작들의 편찬은 조선 사회에서는 대명의리론이 강화되고 국왕의 주도로 창덕궁 후원에 황단을 건설하고 명 황제의 제사를 지냈으며, 조선인의 의리를 드러내는 『존주휘편』이 편찬된 것과 맞물려 있다. 『정미전신록』은 임인관 일행을 청으로 보내 죽게 한 데 대해 비판하면서 대명의리를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 1798년 정조는 의주 현충사에 임인관 일행을 위한 별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했고 이는 성해응이 증보본을 편찬하는 계기가 됐다. 『뇌뢰낙락서』와 『황명유민전』 등 명 유민을 기록한 책들은 조선 사회에 명 유민들을 가시화할 필요성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저에는 존주양이에 기반하여 대명의리를 지키다는 조선 중화주의의 흐름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절의와 의리를 지킨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명 유민들은 18세기 조선이 조선중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다시 소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명 유민들의 삶이나 조선인들의 명 유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까? 명 유민은 조선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 3. 명 유민의 재현을 통해 본 이민자로서의 삶

많은 수의 유민이 왔지만 얼마나 왔는지도 잘 알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아서 그 실상을 잘 알기는 어렵지만 명 유민이 조선에 정착한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군대를 따라왔다가 정착한 경우, 명칭 교체기에 이주한 경우이다.<sup>28)</sup>

27) 손혜리(2017), 앞의 논문, 354~355쪽.

28) 최승현, 『한국의 명대유민 연구』, 『중국인문과학』 47, 2011, 351~366쪽.

그러나 명이 망한 뒤 귀화 한인들을 돌려보내라는 청의 압력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명 유민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웠다.<sup>29)</sup> 이들은 관직에 나아간 경우도 있지만 고기를 낚아 생계를 잇거나, 무예를 교습하고, 염초 굽는 방법을 전수하기도 하고, 역관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당시에 창작된 문학작품은 이러한 명 유민의 자취를 담고 있어 명 유민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일본, 베트남을 배경으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거듭하는 과정을 그린 <최척전>에는 명군으로 와서 주둔하고 있던 여유문, 명나라 장수 유정의 군대에서 잘못을 저질러 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자 도망해서 대구에 머물며 침술을 배운 진위경이 등장한다. 이들의 등장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에 명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으로 출병한 뒤 소식을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찾아 조선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요사이 길에 떠도는 말을 듣자니, 폐잔병 중에 흑 목숨을 건져 조선에 남아 떠도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고들 합디다.”<sup>30)</sup>라고 한 홍도의 말은 당시 조선에 명군의 잔류병들이 많았음을 시사한다.

<최척전>은 당시 명 유민의 실상을 부분적으로 전해주고 있지만 서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최척의 삶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강세작(康世爵)과 굴씨(屈氏),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명 유민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세작에 대해서는 세 편의 전, 한 편의 기(記), 한 편의 묘지명 이외에도 『병세재언록』, 『뇌리낙락서』, 『황명유민전』 등의 기록, 여러 편의 시가 남아 있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민자로서의 삶의 형태와 그 내면을 엿볼 수 있고, 굴씨는 몇 편 되지 않는 여성 기록들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송시열을 비롯한 당시 사대부들의 기록에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다.

29) 우경섭(2012), 앞의 논문, 335쪽.

30)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이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58쪽.

강세작은 회남 출신으로 열여덟 살에 아버지를 따라 요양으로 갔다가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자 탈출해서 조선에 살게 된 인물이다. 그는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사로잡힌 뒤 조선으로 가면 변발하고 오랑캐 옷을 입는 것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주하여 양가죽 옷을 칼로 베어 물에 삶아서 삼키고, 13일 동안 새와 짐승처럼 숨고 달려 1625년 8월에 드디어 압록강을 건넜다.<sup>31)</sup> 남구만은 그의 탈출 장면을 <김영철전>의 김영철의 탈출만큼이나 박진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에 정착한 강세작이 역(驛)의 여종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관찰사가 상국(上國)의 사대부의 후예로 천인의 호적에 떨어지는 것이 가없다고 조정에 보고해서 속량을 허락받은 이야기, 점술과 관상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방법을 알았으나 한 번도 기술을 판 적이 없고 농사에 힘써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생산해서 먹고 살았으며,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를 간명하게 서술했다.

박세당의 <강세작전>에는 탈출기가 간단하게 서술된 대신 고을의 관원들이 타국에 떠돌며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를 불러 후하게 대접했다는 일화나 농사를 지을 때의 일화, 물고기 잡는 일화 등이 서술되어 있어 강세작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박세당은 언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을 전한다. 박세당은 강세작의 나이 60세 무렵에 강세작을 만났는데 그 말이 사투리라서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자 강세작이 웃으며 어려서 중국을 떠난 지 40년이나 되어 중국어도 잊어버리고 조선어도 제대로 다 배우지 못했다고 하며 스스로를 ‘한단학보’ 즉 이도 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조했다. 언어 문제는 강세작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호겸은 명의 병부상서를 지낸 전응양의 손자인데 효종이 즉위하여 변방의 장수를 시키려 하자 동국[조선]의 말을 모른

31) 남구만, 『강세작전』, 『약천집』 권28.

다는 이유로 사양했다.

중국어도 조선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대부 출신이었으나 천민 여성과 결혼하고,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면서, 술로 자신의 기분을 풀곤 했던 강세작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강세작은 죽을 무렵에 그 선조의 계통, 종족, 난리를 만나 떠들게 된 전말을 자세히 기술하여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유골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원수를 갚지 못했다. 실낱같은 목숨을 스스로 아껴서 잠시 동안 구차히 연명하여 딴 나라에 몸을 의탁하고 종을 배우자로 삼았다. 그리하여 살아서는 치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죽어서는 부끄러운 귀신이 될 것이니 너희는 나를 폄하해서 박장해서 군주와 부모에 대한 애통함을 표시하고 평생의 죄를 속죄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효도하는 길이다.”<sup>32)</sup>

그는 자신의 삶을 회한에 찬 죄인의 삶으로 표현하고 죽어도 부끄러운 귀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세작은 늙어서도 고향을 잊지 못해 평소에도 초관(楚冠)<sup>33)</sup>을 쓰고 지낼 정도로 고향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강세작이 죽은 뒤 회령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집을 초관이라 하고 황경원에게 그 서문을 써 달라고 했다. 황경원은 『초관당기』를 써 주었는데 이 글은 조선 사대부 황경원과 명 유민인 강세작의 시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32) 남구만, 『강세작전』, 『약천집』 권28, 31쪽, “世爵將死, 敘其祖系宗族及喪亂流離之首尾以遺其子, 且曰吾父死而未收其骨, 國滅而未復其讎. 自惜縷命, 苟延晷刻, 託身他邦, 耦於隸徒, 生爲辱人, 死爲羞鬼, 汝曹貶我以薄葬, 俾得表君父之痛, 贖平生之罪, 是汝曹之孝也.”

33) 초관은 초나라의 관으로 본국의 의관을 말한다. 춘추시대 초나라의 악관 종의(鍾儀)가 진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초나라의 관을 쓰고 있었고, 진의 경공이 음악을 연주하라고 하자 초나라의 음악을 연주했다.

명나라가 남쪽으로 옮겨간 뒤로부터 공대부들이 미안마로 달아났으나 모두 죽임을 당했고, 친왕의 아들 팔십 명이 태국으로 들어가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하지 않은 자가 드물었다. 그러나 오직 강씨는 회령부에 살면서 시골에서 천수를 마쳤으며 초관을 여전히 바꾸지 않았다. 내가 일찍이 예로부터 속국으로 중국 조정과 친근했던 경우는 오직 우리나라와 명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선비가 명나라로 도망가면 선제가 반드시 받아주었고 명나라의 선비가 우리나라에 도망 오면 선왕도 반드시 받아주었다. 그래서 강씨가 봉황성에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 몸을 받아주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 명나라의 선비로서 남쪽 오랑개 땅에 살면서 능히 그 몸을 보전한 자는 참으로 드물다. 강씨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향리에서 육십 년을 한가로이 지내다 끝내 천수를 다했으니 천하에서 누가 우리나라가 명나라 선비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가?<sup>34)</sup>

황경원은 미안마로 달아난 사람들과 조선으로 달아난 사람들을 비교하고, 남쪽으로 달아난 사람들은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웠으나 강제작은 조선에 와서 한가로이 지내며 천수를 누렸다고 쓰고 있다. 황경원은 전쟁 난민인 강제작을 조선이 받아주고 살게 해 준 것을 강조하고 그의 곤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황경원은 속국 조선과 명의 관계가 친근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남구만은 조선에 온 중국 사람들과 강제작을 비교하면서 강제작의 삶을 평가했다. 남구만은 조선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공연히 과장하고 이익을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만족하지 않는데 강제작

34) 황경원, 『초관당기』, 『강한집』 권10, 21~22쪽, “自明南徙, 公大夫出奔緬中, 皆見殺, 而親王子八十人入暹羅國, 不斷髮而文身者幾希矣. 獨康氏家會寧府, 以天年終於田里, 而楚冠尙不改也. 余嘗謂自古屬國親近於中朝者, 惟吾邦與明爲然. 吾邦之士如奔明, 則先帝必相容也, 明之士如奔吾邦, 則先王必相容也. 故康氏自鳳凰城來吾邦, 不憂其身之不見容也. …… 夫明之士居南夷, 能全其身者誠寡矣. 若康氏者, 居吾邦, 優游田里六十年, 竟以壽終, 則天下孰謂吾邦不能容明之士也.”

만은 과장하지 않고 함부로 취하지 않았으며 말을 바꾸지 않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서 향리에서 신임을 받았고 아들들이 그 가르침을 행했다고 평가했다. 남구만의 언급에서는 조선에 온 명의 유민 대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드러난다.

명 유민 가운데는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병세재언록』, 『뇌뢰낙락서』, 『황명유민전』 등에 실린 여성들은 최희저, 유저, 긴저, 굴저(또는 굴씨) 등인데 대부분 궁녀들이다. 이 중에서 굴씨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 기록도 『임하필기』, 『경수당문고』 등 여러 책에서 보인다.<sup>35)</sup> 그 이유는 굴씨가 비파를 잘 탄데다 효종에게 상투 뜨는 법을 알려주어서 송시열을 비롯한 사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굴씨는 소주 지역 양가의 딸로 태어나 일곱 살에 나인으로 뽑혀 승정제 황후를 모신 궁녀였다. 승정 만년에 이자성이 수도를 함락한 뒤 황제가 자살하고 황후도 죽자 여항에 숨어 있던 굴씨는 청나라 군사에게 발각되어 청 태종의 왕자의 군중으로 잡혀갔다. 굴씨는 왕자인 도르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으나 도르곤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심양에 불모로 있던 소현세자에게 넘겼다. 굴씨는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 따라와서 만수전에 소속되어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비를 모셨다.

굴씨는 궁녀였지만 글을 몰라서 자신의 이름을 쓸 줄도 몰랐다. 사람들이 이 이름을 묻자 중국에 있을 때 장부에 적혀 있던 자신의 이름이 척(尺)자와 비슷하고, 그 발음이 규(圭)와 비슷하다고 해서 규저로 부르고 글로는 굴씨(屈氏) 또는 굴저(屈姐)라고 썼다. 굴씨는 명나라의 회복을 고대하여 자신이 죽으면 서쪽 근교의 길가에 묻어 달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고양의 대자동에 묻혔다. 숙종은 굴씨의 제사를 명 유민의 후예인 광평전씨 전회일에게 지내게 하고 매년 제수를 내려주었다. 굴씨는 새나 짐승

35) 굴저에 대한 글로는 송지원, 「명나라 유민, 궁녀 굴저(屈姐)와 비파」, 『문헌과 해석』 50, 2010, 27~35쪽이 있으며 주로 음악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을 길들이는 재주가 있었고, 비파 연주를 잘 해서 소현세자를 따라 향교 방 집에 머물 때 장악원 악인들에게 비파를 가르쳤다.<sup>36)</sup> 일찍이 효종이 굴씨에게 머리 틀어 올리는 법을 물었는데 송시열이 그 방법을 듣고 집안의 부녀들에게 실행하게 했다.<sup>37)</sup> 이것이 사족들의 집안에도 전해지면서 굴계(屈髻)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굴씨에 대한 기록은 청에 대한 복수심, 비파를 잘 탄 것, 머리 틀어 올리는 법을 알려 준 것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뒤로 갈수록 굴씨의 청에 대한 적개심과 북벌에 대한 지지가 더 강조되는<sup>38)</sup> 경향이 있다. 굴씨는 글을 모르는 대신 음악이나 상투 뜨는 법 등 중국의 문화를 전하면서 조선 사람들과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 굴씨는 조선에 와서 조선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기보다는 명나라의 제도를 고수해서 조선 사대부들에게 명의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굴씨 외에 소현세자를 따라온 여성으로 나중에 최회저(崔回姐), 긴저(緊姐)가 있는데 이들은 자수를 잘했으며 궁에서 지냈다.<sup>39)</sup>

강세작은 언어를 제대로 소통하지 못 하고 굴저는 자신이 이름이 제대로 불리지 못했다. 강세작은 모국어인 중국어도 잊어버리고 조선어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한문은 구사할 수 있었지만 이전의 모국어와 새로운 언어 사이에서 말을 잃어버린 강세작은 두 언어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으나, 그 경계는 소통이 원활한 경계가 아니라 양쪽 모두 소통이 되지 않는 경계였다. 이 경계에서 강세작은 주체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기 어렵다. 자신의 본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비슷한 이름으로 불린 굴저 역시 주체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

36) 신위, 『송정궁인굴씨비파기』, 『경수당전고』 9책, 183~184쪽.

37) 성해응, 『황명유민전』, 『연경재전집』 권43.

38) 임헌희, 『비굴저(悲屈姐)』, 『고산집』 권1, 34쪽.

39) 성해응, 『황명유민전』, 『연경재전집』 권43.

강세작이나 굴저만큼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나머지 명 유민들의 삶은 이들보다 더 곤핍했던 것으로 보인다. 효종이 청나라에 인질로 있다가 돌아올 때 따라온 구의사(九義士)에 관한 기록에서도 모욕적인 일을 당한 경험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다. 효종을 따라 온 명 유민 중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어 그물로 고기를 잡아 임금에게 올리곤 하자 나중에 한인아병(漢人牙兵)이란 이름으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고기잡이로 노역 당했는데 그 고초를 감내할 수 없었고, 진법을 훈련할 때면 배척하여 왜군 초병 역할을 맡게 하니 천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 심했다.”<sup>40)</sup> 그들을 위해 별도로 한려군관을 설치하고 훈련도감에 소속시키지 않은 뒤에야 그들은 고기잡이의 노역에서 벗어났다. 정조도 이 일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그야말로 극도에 이르렀다고 하며, 중국 사대부들의 후예인데 이런 천하고 비루한 일을 시키는 것을 애석해 했다.<sup>41)</sup>

#### 4. 조선의 명 유민 서사에 대한 명 유민의 대항서사, 안과 밖의 경계 변환

대명의리를 강조하는 조선사회에서 명 유민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 사대부들이 동류로서 서로 어울리려 하지 않음이 많았다. 八姓 또한 진실로 오랑캐들의 모욕을 피하고 오로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 다른 계책을 피하지 않았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땅으로 흘러 들어와 귀하고 높은

40) 성대중, 『청성잡기』 권5, 『성언(醒言)』, “役以漁丁, 不堪其苦, 習陳則斥爲倭哨, 卑末之已甚.”

41)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3월 19일.

자리에 오른 자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려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유독 황조의 유민들만은 배척을 당했으니 실로 이상하다.<sup>42)</sup>

성해응은 사대부들이 동류로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명 유민들도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도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유독 명의 유민들이 배척당한 것을 의아해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중화주의가 사상의 획일화를 추구하며 포용 대신 차별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차별 속에서 향화인들이 서서히 비주류 하위계층으로 자리 잡아 갔다는 것이다.<sup>43)</sup> 조선중화주의는 당시 조선이 정체성을 바꾸는 기획이었다. 북방민족이나 왜에 비해서는 문명국이지만 명에 비하면 소중화였던 조선은 명이 망한 뒤 명분을 내세워 청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이 명을 계승한 것으로 자처했다. 황조인 우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정책이고 이는 고종 때까지 계속되었다. 향화인이든 황조인이든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경계를 넘어온 자, 이민자, 타자임이 분명하다. 화와 이의 구분은 안과 밖, 문명과 야만, 중심과 주변, 주체와 타자의 구분으로 이어진다. 명 유민은 국가 경계를 넘어 밖에서 왔으니 안과 밖의 축에서는 밖인데, 문명과 야만의 축에서는 문명에 속하고, 중심과 주변의 축에서는 중심에 속하고 주체와 타자의 구분에서는 타자에 속한다. 명 유민은 화와 이, 안과 밖, 중심과 주변,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이들은 타자지만 타자가 아닌, 애매한 타자라 할 수 있다. 명 유민이 당한 곤경의 일부는 이들의 정체성 왜곡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은 스스로를 명의 유민, 대국의 백성, 문명국의 문명인으로 생각하는데 조선 사

42) 성해응, 『팔성전(八姓傳)』, 『연경대전집속집』 15책, “雖無行伍之役, 士大夫多不以輩流相齒. 八姓者, 亦苟免氈裘之陋, 唯以保性命爲幸, 不他較計. 然中國人流落東土, 鼎貴奕赫者, 在三國及高麗時, 可歷數也. 獨皇朝遺黎之見擯斥者, 誠可異也.”

43) 박영환(2019), 앞의 논문, 97쪽.

회는 명분 상 이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명 유민들 일부는 중화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갔다.

19세기 전반기에 와서 명 유민들 사이에서는 조선 사회의 관행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중화문화 구현자로서 구별짓기를 시도하고 유민 정체성을 강화해 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것은 명 유민들이 처한 상황이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선사회에서 중인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도 곤궁했다. 1790년 한려 및 대보단 수직관의 창설로 명 유민의 관직 진출이 늘기는 했으나 명 유민의 전반적 상황을 개선해 주지는 못했다.<sup>44)</sup> 그 후 3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한려청에 모인 명 유민 후예들의 모습은 궁핍하고 초라했다. 구의사의 후예인 왕덕일(王德一, 1779~1854)은 그 원인을 중화의 회복을 희구해 온 것이 너무 오래 된 결과 조선 사람들의 인정이 박절해졌으며 하늘의 뜻도 막연해 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명 유민들이 장차 흥기하고 청이 패망할 것이라고 믿었다. 왕덕구(王德九, 1788~1863)는 자신들을 중화 문화의 정수를 보존하는 존재로 놓고 이를 명 유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친족 조직을 강화하고자 했다.<sup>45)</sup>

이들은 조선의 풍속과 예제를 비판하고 일상생활을 중국의 예제에 더 부합하게 하기 위해 여자들에게도 성인이 되면 이름과 자를 지어주게 하고 조선의 머리 장식인 가체를 비판하고 중국식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런 비판과 대안 제시는 조선 지식인보다 명 유민이 중화 전통의 가장 정통적인 계승자임을 은연 주장하려는 의도였다.<sup>46)</sup> 무엇보다도 왕덕구는 순조 18년(1818) 구의사(九義士)의 행적을 담은 『황조유민록』을 저술했

44) 한승현(2018), 앞의 논문, 328~329쪽.

45) 한승현(2018), 위의 논문, 335쪽.

46) 한승현(2018), 위의 논문, 345~347쪽.

다. 왕덕구는 봉림대군이 심양에 있을 당시 구의사의 절의를 기특하게 여기고, 함께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후하게 대접하고 때로 불러서 청에 대한 복수를 함께 다짐했으나 효종이 죽은 뒤에 대의를 펴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왕이문, 양복길, 풍삼사, 왕문상, 배삼생, 왕미승, 정선갑, 황공, 류계산 등 구의사는 이덕무, 성해옹의 『뇌뢰낙락서』, 『황명유민전』에도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왕덕구의 『황조유민록』은 이들 기록에 비해 내용이 훨씬 풍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왕덕구는 각 인물의 특성, 명이 망하기 전의 행적, 심양으로 가서 봉림대군을 만나 함께 조선으로 오게 된 일, 서울에 와서의 삶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이들이 남긴 시, 관련된 일화를 아울러 기록했다. 제주도에 표류한 임인관을 만난 황공의 기록에는 임인관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과 주고받은 시를 모두 수록하고 있어 나머지 8명의 전에 비해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다. 뿐만 아니라 임인관과 함께 표류한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나이와 이름을 모두 기록했다.

『황조유민록』의 발문을 쓴 황기천(1760~1821)은 기자(箕子)와 은나라 유민으로부터 유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로 명 유민을 기자의 뒤를 잇는 존재로 계보화했다. 명 유민은 기자의 뒤를 잇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명이 망한 뒤 조선으로 온 유민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황기천은 중원에 남은 유민들과 조선으로 온 유민들을 비교하여, 중원에 남은 유민은 머리는 깎았지만 그 후손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일을 보전하고 간혹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도 있는 데 비해 조선에 온 유민은 머리 깎는 욕은 면했지만 조선의 일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황기천은 세 가지 탄식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조선이 삼백 년 간 명을 섬길 때 명의 사대부나 관리를 천상의 사람처럼 우러러 보았고 임진난 당시 명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유민이 왔을 때 최대한 대우했으나 시대가 멀어지면서 그 후손들을 사족의 예로 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조선

의 풍속이 몹시 박해서 국내의 문벌만 높다고 생각하고 대국 유민의 문벌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sup>47)</sup> 황기천의 발문은 조선인으로서 명에 대한 의리에 입각해서 명 유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황조유민록』은 조선 지식인의 입장에서 쓴 기존의 구의사의 기록과 달리 명 유민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는 조선 지식인이 쓴 명 유민의 서사에 대항하는 명 유민의 서사라 할 수 있다.<sup>48)</sup> 왕덕일과 왕덕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도는 조선이 내세운 조선중화주의에 맞서는 서사로 볼 수 있다. 당시 중화 문화의 계승자로 자처하던 조선 사회 내에서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명 유민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문화적 자산이었다.

조선사회는 조선중화주의를 강조하면서 향화인과 황조인을 구별하고, 대명의를 강조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이에 대해 왕덕일과 왕덕구 등 명 유민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중화 전통의 가장 정통적 계승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보다 선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명한 경계를 필요로 했다. 문화는 그 결과 왕덕일과 왕덕구는 엄격한 화이론과 철저한 존주대의를 주장했다. 이들의 시도는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자극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이었다. 정체성 강화와 문화의 정통성 주장을 통한 경계 만들기는 자칫 고립적 공동체로 만

47) 황기천, 『황명유민록 발』, 『황명유민록』, 국립도서관소장본, “然窃嘗有三歎息者, 我朝鮮三百年事明時, 明朝衣冠之族縉紳之列, 仰之若天上人. 且於壬辰皇恩之浹骨也, 欲報之心雖九死而不辭矣. 及夫甲申以後, 遺民之來託於我者, 我之所以待之, 當靡不用極, 而諸公之家僅以廩第厚遇之. 至于時移世遠之後, 則諸公後孫初不以我國士族例之, 至麻公之孫不知所終. 此蓋東俗甚薄, 專以國內門閥自高, 不顧大國遺民之門閥也.”

48) 국가의 주변에서, 즉 이민이나 추방 때문에 하나 이상의 문화를 살았던 국가 또는 문화의 혼종들에서 대항 서사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혼종들은 자신을 채택한 국가가 총체화하는 경계들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한다. 니라 유발-데이비스, 박혜란 옮김, 『젠더와 민족』, 그린비, 2012, 112쪽.

들 우려가 있다. 소수집단일수록 스스로를 동질적이며 통일된 하나의 문화적 목소리로 말하는 존재로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왕덕일과 왕덕구를 중심으로 한 명 유민들의 정체성 확립은 명 유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족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명 유민의 이러한 대항서사가 갈수록 주 변화되고 곤궁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점이다. 명 유민은 중화주의에 근거하여 청에 대한 복수설치에 공감하고 우대를 받기도 했지만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주변적 존재로 남았으며 현실적으로 곤궁했다. 강세작이나 굴씨의 경우에서 보듯 언어로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명 유민들은 혈연 공동체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강세작은 아들들에게 함께 모여 살라는 유언을 남겼다. 조선의 지식인은 명 유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들의 삶의 문제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절의를 강조하는 데 그쳤다. 또한 향화민의 대우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태도를 취했다. 조선중화주의뿐만 아니라 왕덕일, 왕덕구의 주장이 나오는 전 이미 홍대용이나 박지원은 화와 이, 안과 밖, 중심과 주변의 해체를 시도했다. 청나라 역시 화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중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았다. 천명을 계승하여 중국과 외국, 신화와 백성의 주인이 되었으니 화와 이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49)</sup>

안이면서 밖이고, 중화의 위치에 있으면서 타자의 위치에 존재한 이 애매한 타자인 명 유민의 존재는 조선중화주의의 명분과 실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 내 이민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준다. 조선 사회에 유입된 명 유민들 중 일부는 자신들을 문화적 중심, 중화의 주체로 자부했으나 사회적 위치는 중심에서 점점

49) 거자오광, 김효민 등 옮김,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소명출판, 2019, 199쪽.

떨어졌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조선이 명에 대해 하나의 공동체로 느끼는 정서는 낮설지만 한편으로는 화이의 관점에서 국가, 민족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게 된다. 화이의 구분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명 유민의 존재가 국가, 민족, 인종, 화이, 젠더, 언어 등의 경계를 복잡하게 겹치고 가로지름으로써 경계 자체를 해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었을 수도 있을까? 조선후기 명 유민의 존재는 우리에게 오는 타자들은 언제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 그런 점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경국대전』

남구만, 『약천집』, 한국고전번역자료 DB

『논어』

『영조실록』, 한국고전번역자료 DB

『정조실록』, 한국고전번역자료 DB

성대중, 『청성잡기』, 한국고전번역자료 DB

성해응, 『연경재전집』, 한국고전번역자료 DB

신위, 『경수당전고』, 한국고전번역자료 DB

왕덕구, 『황조유민록』, 국립중앙도서관 DB

임헌희, 『고산집』, 한국고전번역자료 DB

황경원, 『강한집』, 한국고전번역자료 DB

### 2. 논저

거자오광, 김효민 등 옮김,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소명출판, 2019, 1~292쪽.

김문식, 『成海應이 증보한 『丁未傳信錄』』, 『진단학회』 115, 진단학회, 2012, 93~122쪽.

노혜경, 『영조대 황조인에 대한 인식』, 『동양고전연구』 37, 동양고전학회, 2009, 127~159쪽.

니라 유발-데이비스, 박혜란 옮김, 『젠더와 민족』, 그린비, 2012, 1~280쪽.

박영한, 『한국 중세시대에 보이는 난민들』, 『다문화콘텐츠연구』 30,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9, 73~102쪽.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이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1~173쪽.

주영아, 『디아스포라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문학적 수용 태도-명나라 유민 강제작의 실상을 중심으로-』, 『동방학연구』 37,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257~284쪽.

사경화, 『조선 후기 明 遺民에 대한 기록 양상』, 『한문고전연구』 34, 한국한문고전학회, 2017, 231~263쪽.

서근식, 『조선시대 ‘항화’ 개념에 대한 연구-『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동양고

- 전연구』 37, 동양고전학회, 2009, 7~31쪽.
- 서신혜, 「李奎象이 『并世才彦錄』에 쓴 明人 기록의 등장 底邊-『寓齋錄』, 『風泉錄』의 意義와 관련하여」, 『어문연구』 38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423~444쪽.
- 손혜리,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 지식인들의 明 遺民에 대한 기록과 편찬 의식」, 『한국실학연구』 28, 한국실학학회, 2014, 327~361쪽.
- 손혜리, 「반계가 바라본 명칭 교체와 명 유민」,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2017, 321~347쪽.
- 송지원, 「명나라 유민, 궁녀 굴저(屈姐)와 비파」, 『문헌과 해석』 50, 태학사, 2010, 27~35쪽.
- 우경섭, 「명칭교체기 조선에 표류한 漢人들-1667년 林寅觀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8, 조선시대사학회, 2019, 47~76쪽.
- 우경섭, 「조선후기 귀화한인과 황조유민의의식」, 『한국학연구』 2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333~365쪽.
- 윤세순, 「17C 중국인 피난민 강제작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와 그 태도-〈강세작전〉과 〈강군세작묘지명〉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213~258쪽.
- 이규상, 『병세제언록』,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창작과비평사, 1997, 1~412쪽.
- 임선빈, 「조선초기 歸化人의 賜鄕과 특징」, 『동양고전연구』 37, 동양고전학회, 2009, 63~91쪽.
- 최승현, 「한국의 明代遺民 연구」, 『중국인문과학』 47, 중국인문학회, 2011, 351~366쪽.
- 한문중, 「조선초기의 向化倭人과 李藝」, 『한일관계사연구』 28, 한일관계사학회, 2007, 89~116쪽.
- 한승현, 「19세기 전반기 明 遺民의 정체성과 구별짓기: 濟南 王氏 王德一, 德九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46, 역사교육연구회, 2018, 325~365쪽.

##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Displaced Persons of Ming(明)  
in the Joseon Dynasty

Kim, Kyung-mi

This article examines how migrants from Ming(明) were treated and represented in Joseon Dynasty through the records of them which had been written by the Joseon intellectuals and the descendants of migrants in that period. Though the number of immigrants who came from other countries like Japan and became naturalized was not small from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immigrants rapidly increased. Most of them were descendants of the Ming soldiers who came to Joseon as supporters during the Imjin War, or people who came because they disobeyed Ching or displaced persons from Yodong area after the fall of Ming. The Joseon people named them Hwangjojin or Hwangjioumin, and treated them with respect based on the theory of Jonjou(尊周). These people were even allowed to serve public service and the Joseon Dynasty left records of them. But the displaced persons from Ming were not recognized by the intellectu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failed to engage in the upper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representations of Kang Se-jak(康世爵) and Guljeo(屈姐) and the language problems they had faced significantly revealed the location of displaced persons from Ming. Kang Se-jak could not properly communicate in the Korean language, and Guljeo herself was not rightly named. Kang Se-jak could not learn the Korean language while he forgot the Chinese language. Though he was able to write the Chinese, he couldn't speak any language properly between the old native language and the new language. This situation showed his location at the border of the language, and the life on the border. Considering this, we can't say that Kang Se-jak lived a life as a subject. Guljeo, losing his

original name and called by a similar name, also couldn't live a life as a subject. Some other displaced persons from Ming besides Kang Se-jak and Guljeo were found to be positioned as middle though they were economically needy. In this situation, some descendants of the displaced persons from Ming tried writing records of their forefathers' stories of immigration and settlement. These records were regarded by Joseon intellectuals as the counter-narrative about the displaced persons from Ming against those which were written by Joseon intellectuals. But ironically, the narrative by the descendants from Ming's migrants was only to strengthen the boundary between inside and outside by focusing on their own identity.

**Key Words**

Displaced persons, Immigrant, Kang Se-jak(康世爵), Guljeo(屈姐),  
Border

논문투고일 : 2020.04.22

심사완료일 : 2020.05.13

게재확정일 : 2020.05.17